

#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(문화체육관광부 소관)

2013. 3.

대한민국정부

## 【한국콘텐츠진흥원】
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102.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이전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	<p>&lt;조치결과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(2010년 5월)된 후 설립(2011년 4월)되었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이전이나 잔류여부를 검토받지 못함</li> </ul> <p>&lt;향후계획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이전/잔류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의 결정 및 지침에 따라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</li> </ul>
103. 콘텐츠진흥원 전체 계약의 32%가 수의계약일 뿐만 아니라,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는바, 이에 대해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	<p>&lt;조치결과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체 수의계약 중 36%는 정부권장에 따른 우선구매 계약 건이며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 금액도 전체계약 금액의 6% 수준임. 정부권장정책에 따른 우선구매를 준수하면서도 수의계약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도 개선과 내부지침 정비 및 각 부서 협의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</li> </ul> <p>&lt;향후 추진계획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의계약 축소를 위한 내부 규칙 개정 진행 중</li> <li>○ 공정·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홈페이지 내 공고 시스템 구축 운영, 조달청 나라장터 통한 구매 확대</li> <li>○ 부서별 수의계약 축소 방안 마련 및 실시</li> </ul>
104. 콘텐츠진흥원 직원 중 과장 이상이 65%에 달하고, 7개 센터의 업무가 본원과 중복되는 등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조치결과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장급 이상 직원의 비율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3년 3월 7일 현재 과장급 이상 직원은 121명(현원 193명)으로 전체직원의 62.7%에 해당하고 있음</li> <li>- 올해 정년퇴직예정자(2명) 및 신입직원총원(5명)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노력 경주</li> </ul> </li> <li>○ 각 센터의 본원과의 업무중복 문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센터와 본원과의 업무중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업무조정 시행(제20회 이사회:12.05.0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게임기업 제작지원 및 인큐베이션 : 글로벌허브센터로 일원화</li> <li>· 게임을 제외한 기타 스마트콘텐츠의 제작지원 : 스마트콘텐츠센터로 일원화</li> </ul> </li> <li>※ 센터 업무 중 본원의 스텝기능은 전혀 없으며 인큐베이션 사업 추진기능 및 인력만이 배치되어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향후계획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장급 이상 직원의 비율 관련</li> </ul>
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3년도 정년퇴직자(2명) 및 신입직원채용(5명)을 적용하여 재계산 시 과장이상 비율은 60.1%까지 하락 예정</li> <li>- 2011년 이후부터 신규채용 시 청년·신입직원만을 채용하고 있음</li> <li>- 향후 신규인력채용 등 인적자원 관리 시 과장급 이상 직원 비율을 축소토록 노력하겠음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 센터의 본원과의 업무중복 문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텐츠 장르별, 사업성격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원화된 전담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분장의 일관성 유지</li> </ul> </li> </ul>
105.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중복 지원 및 대기업 계열사 지원 문제를 시정할 것	<p>&lt;조치결과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감지적에 따라 기원 기준 강화 (2013년 1월 시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시지원 : 최대 3개 과제 → 최대 2개 과제로 축소</li> <li>- 대기업 또는 계열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내부지침에 명문화 (부득이한 경우는 예외) (콘텐츠 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개정/13년1월18일)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향후계획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 중이며,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과 교차확인을 통해 중복지원 및 대기업계열 지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노력 추진</li> </ul>
106. 완성보증 한도의 증액 및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지원 등 콘텐츠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것	<p>&lt;조치결과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완성보증 보증지원 한도 증액('12. 6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증지원 한도를 제작비의 30%에서 50%로 상향</li> </ul> </li> <li>○ 뮤지컬 공연 장르에 대한 첫 완성보증 지원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뮤지컬 공연 4개 프로젝트에 총 34억원 보증지원</li> </ul> </li> <li>○ 전년대비 '12년 완성보증 금액 50% 초과 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12년 총 393.6억원 보증지원(최대 실적)</li> </ul> </li> <li>○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추진 TFT 구성('13. 3월)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향후 추진계획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완성보증제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술보증기금과 협의하여 소액 보증 활성화 방안 수립</li> </ul> </li> <li>○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부 국고 10억원 교부 예정('13. 4월)</li> <li>-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추진 위원회 구성('13. 4월)</li> <li>- 문화부 국고 20억원 교부 예정('13. 6월)</li> <li>-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총회('13. 10월)</li> <li>- 대기업들의 공제조합 가입유치를 추진하여</li> </ul> </li> </ul>
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<p>민간출자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예정</p>
107. 독립제작사들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줄어 들고 있는바, 독립제작사들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	<p>&lt;조치결과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독립제작사에 대한 직접지원은 축소 또는 동결되고 있는 추세임. 그러나 인프라 확충·현업인 재교육 등을 통한 간접지원은 확대되고 있음</li> </ul> <p>&lt;향후계획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예산 확대에 노력하겠음</li> </ul>
109. 2010년 이후 2년간 95억원을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관련 91개 작품 가운데 6.5%(6편)만이 해외에 진출하였는바, 지원 대상 선정을 엄밀하게 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선할 것	<p>&lt;조치결과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사업의 성격과 방향성에 따른 결과로 사료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글로벌 킬러콘텐츠로써 &lt;미니시리즈&gt;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니시리즈 지원작 전편(100%)이 해외판매됨</li> </ul> </li> <li>-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재의 &lt;단막극&gt;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세제작사의 우수기획안의 제작지원을 통한 역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&lt;다큐멘터리&gt;지원으로 구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지원작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2012년도 지원작부터 상용화 실적이 없는 지원작에 한하여 진흥원이 비독점 판권을 확보, 적극적인 마케팅지원을 추진</li> <li>○ 지원작 세일즈킷을 제작, 해외주요 마켓 등에 배포</li> </ul> <p>&lt;향후계획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콘텐츠에 특화된 심사기준과 전문심사위원 구성 등을 통하여 우수한 콘텐츠의 선정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노력하겠음</li> </ul>